

Q&A 7월 2주차 — 한국 증시 세 가지 질문 (레버리지 ETF·채권금리·외국인 순매도)

2026-07-06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qna_part5_04

주가는 명목으로 신고가를 쓰는데, 그 밑에서 통화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자리에 서 있다

01 핵심 골격

- 1 구독자가 한국 증시에 대해 세 질문을 한꺼번에 던졌고, 강사는 세 답을 하나로 모은다
- 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보유자 92%가 개인이고 일일 회전율이 113% — 지수형(30.2%)의 3.7배다
- 3 출시 후 삼성전자 일일 변동 폭이 4.4%에서 6.8%로, SK하이닉스는 5.1%에서 7.8%로 커졌다
- 4 6월 23일 코스피 -9.99%는 역대 5위 하락률인데, 1~4위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
- 5 같은 제도가 다른 결과를 내는 이유는 국민성이 아니라 유동성·세제·자금 성격의 차이다
- 6 한국 10년물 국고채만 2.7%에서 4.3%대로 올랐다 — 미국은 같은 기간 제자리였다
- 7 금리를 밀어 올린 것은 국민연금의 채권 비중 축소, 예금 해지와 빚투, 외국인 140조 순매도다
- 8 당국은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며 금리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— 부동산을 잡으려는 노림수로 보기 어렵다
- 9 일본 증시를 올린 것은 외국인 복귀가 아니라 일본은행의 직접 매입(시총 7%)과 엔저였다
- 10 닛케이는 엔화 기준 155%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63% — 통화 가치 하락이 명목 상승을 부풀렸다

02 최신 지표 보강 (2026-09-08 (회차 2026-07-06 기준 + 이후 확인))

강의 열흘 뒤, 규제가 실제로 나왔다

기본예탁금 1,000만 → 3,000만 원 (2026.7.31 시행)

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2026년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. 추가 상장 중단과 광고 금지는 즉시 시행됐고, 7월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이 세 배로 올랐다. 계좌 안 주식·ETF·채권을 시가의 70%까지 인정해주던 방식도 폐지되어 현금만 인정한다.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는 8월 19일부터, 매매수량 단위 확대는 11월 중 시행 예정이다. 회차가 '금감원 장까지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'고 전한 단계에서 열흘 만에 제도 조치로 이어졌다.

출처 · fsc.go.kr

환율은 뒤집혔다 — 1,530원대에서 1,340원대로

2026.9.7 원·달러 1,340.5원 (장중 1,334.7원)

회차 시점의 환율은 1,530원 돌파와 1,540원 방어였다. 두 달 뒤인 9월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1,340.5원을 기록했고 장중 1,334.7원까지 내려가 약 2년 만의 최저 수준이 됐다. 같은 날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약 2조 5천억 원 순매수했고 코스피는 4% 넘게 올랐다. 다만 그날 장중 국민연금의 환헤지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을 일부 되돌렸다 — 환율에 공적 자금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는 회차의 진단 그대로다.

출처 · mt.co.kr

국민연금 리밸런싱은 회차 닷새 전에 이미 재개돼 있었다

2026.7.1 재개 · 하루 매도 한도 9,100억 → 2,250억 원

강사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서 국채로 자금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는데, 그 방향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.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 유예됐던 리밸런싱이 7월 1일 재개됐다. 6월 30일 기준 국내주식 비중은 약 30%로 목표 20.8%를 9.2%p 넘어선 상태였다. 다만 하루 매도 한도가 축소되어 재개 첫날 유가증권시장 순매도는 2,178억 원에 그쳤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498억 원을 순매수했다. 방향은 돌아섰지만 속도가 묶여 있었다는 뜻이다.

출처 · kbthink.com

금리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

2026.9.4 한국 10년물 4.35%

회차 시점 4.2~4.3%대였던 한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두 달 뒤에도 4.35%로 내려오지 않았다. 시장에서는 향후 3개월도 4.00~4.50% 범위의 박스권을 예상한다. 환율이 200원 가까이 되돌린 것과 대비되는 대목으로, 강사가 함께 묶어 말한 '금리와 환율' 두 축 가운데 한쪽만 풀린 상태다.

출처 · ko.tradingeconomics.com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- 01 정부·국민연금을 향한 주문 ① 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서 자금을 빼 국채로 되돌리는 것. 강사는 이것을 금리를 잡는 유일한 길로 말한다

02 정부를 향한 주문 ② — 금리(돈값)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. 그래야 물가가 잡히고,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, 투자가 이어진다는 순서를 강사가 직접 제시한다

03 정부를 향한 주문 ③ — 증시 부양을 넘어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. 강사는 한 두 달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본다

Fanding @kpunch · qna_part5_04